## 복음의전함의 시작과 복음광고의 역할

# 복음의전함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은 비영리 선교단체 입니다.

이름 그대로 복음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비기독교인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복음 광고 또는 복음 컨텐츠로 제작 해서 성도들과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사역의 시작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복음 광고를 제작 합니다. 첫째, 이 복음 광고를 어떻게든 한번은 보게 하자. 두 번째, 비 기독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광고하자.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힘내라는 말 대신에 눈을 감아보세요.”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광고를 읽어보게 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도해보세요” 라는 표현을 썼다면 기독교 광고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다”로 표현해 내용이 궁금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광고가 지하철역에도, 마트에도, 버스정류장에도 붙습니다. 이 복음 광고는 비기독교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에 게재 하며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 왜 복음광고 인가?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루에 약 300여편의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수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하게 된 광고 중 기억에 남는 광고들은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을 수 많은 곳에 알리고,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인상적인 카피라이트, 디자인, 음악, 모델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할 때 광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광고의 효과 입니다.

# 복음 광고의 역할

복음의전함은 일상생활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을 광고 합니다.

여러 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때는 대부분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죽고 싶고, 실패 하고, 두려운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그 때, 누군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아주 힘든 어느 날 그 광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복음 광고 한 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 광고 선교 캠페인

# 세계 6대주 와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전 세계의 핵심 지역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진행하게 하셨고, 북미의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6개의 대륙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이 타임스퀘어 광장의 대형광고판에 복음 광고를 붙이고, 10만장의 전도지를 들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불교국가인 태국, 동생애로 물든 오세아니아대륙의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과 남미 브라질, 아프리카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경남 부산, 전라도 광주, 그리고 제주까지 그리고 다음 강원도를 계획하고 또 다음 세계선교 캠페인 지역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코로나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식사를 같이할 수도 없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기기독교에부터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퍼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셨고, 대면하여 전도하기 어렵다면 움직이는 매체에 복음 광고를 하자!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버스와 택시에 복음 광고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우리가 가지 않는 곳까지 매일 운행되며 가는 곳 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컴플레인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어서 단 한 장의 복음 광고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광고를 버스에 붙이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소위 가나안성도들, 잠시 쉬고 있던 성도님들이 그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일을 하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 비 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플랫폼 들어볼까

인터넷에 Jesus 또는 예수 라고 검색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방방곡곡 캠페인때 버스 광고를 하면서 버스에 뒤쪽에 작게 [오케이지저스]를 검색해 보세요, 라는 광고를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빌리그래함 전도팀과 MOU를 해 [오케이지저스]를 검색하면 빌리그래함 온라인 전도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코로나19로인해 좋지 않은 한국 기독교 이미지 때문인지 접속율이 낮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얘수님을 잘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 했습니다. 조금 쉽고, 재미있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교수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각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다시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볼까가 만들어집니다.

[들어볼까]에 출연하는 셀럽들의 간증,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 오해했거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들어보는 곳 입니다. 6개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이야기들,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다], [바뀌다]를 통해 셀럽들의 간증을 들으실 수 있고, [더알다], [배우다]를 통해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목사님들께 드려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성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죠. 그 대답을 목사님들께서 대신 해 주신 것 입니다.

이 [들어볼까]가 너무 좋은데 잘 알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의전함이 처음 복음광고를 시작하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복음광고로 [들어볼까]를 알리기로 하고 복음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야립 광고판에 [들어볼까]를 알리는 광고를 진행 했습니다. 6개월가량 진행 되었고, 하루 32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상습 정체 구간인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볼까에 접속 했을까요? 각 교회 외벽과 교회차량, 개인 성도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들어볼까]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파일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파일로 각 교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십니다.

[들어볼까]는 전도 플랫폼 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인터넷만 연결 되어있으면 어디서나 전달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다른 어느 나라에 있던 상관 없습니다. 전달 하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볼까] 접속자가 3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300만 뷰 이상 시청을 했습니다. 380명이 영접기도를 따라했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홈페이지에서만 조회된 수치 입니다. [들어볼까] 진입장벽을 더 낮추고 싶었어요.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사실 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조차도 없이 유튜브에서 바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같은 카테고리로 정리해 영상을 업로드 했고, 맞춤처방으로 전도 대상자와 비슷한 상황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공유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고, 구독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여시고 구독 눌러 주세요. 내가 구독하는 채널,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가 알고리즘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이 [들어볼까]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가 앞으로 15개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번역 중입니다. 몇 가지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셀럽들이 [들어볼까]에 출연해 전도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외국의 크리스천 셀럽들도 이 일에 참여 하면 좋겠다 라는 꿈을 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국가의 선교, 전도사역에 더 큰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볼까]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원하며 마음을 만지실 때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각 사역지 마다 넘쳐나길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지원하겠습니다.

##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복음명함

들어볼까를 활용한 새로운 전도 콘텐츠입니다. 특히 뒷면에 QR 코드에는 담임목사님, 또는 각 부서별 담당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영상을 담아 관계 전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용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며 각 교회에서 신청자를 받아 제작 하시면 됩니다.

# 심플

복음의전함은 매월 심플이라고 하는 작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라는 뜻을 갖고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톡, SNS 를 활용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더 알리고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 It’S Okay with JESUS

괜찮다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괜찮다.

군인 자살률이 우울증에 걸린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군종목사단에서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의 복음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하셔서 괜찮아 시리즈 12편의 복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